

앨런 나이트의 『멕시코혁명』¹⁾

박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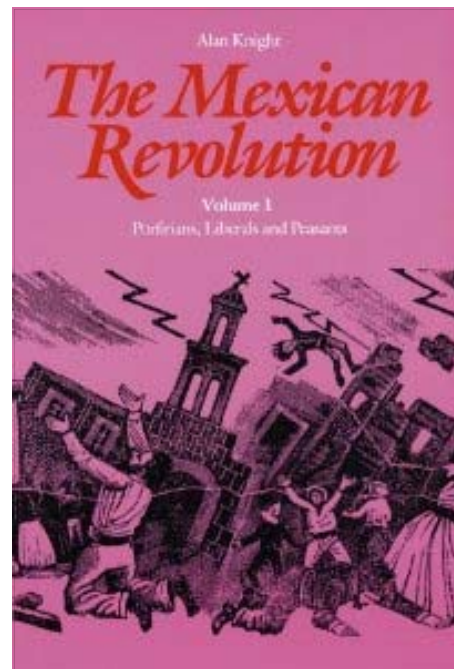
1. 프롤로그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멕시코혁명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만하다. 멕시코혁명은 시기적으로 러시아혁명을 앞설 뿐 아니라 지속기간과 기존체제의 파괴라는 측면에서도 20세기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에 못지않다. 칠레의 역사학자 페르난도 미레스(Fernando Mires)가 적절히 요약한 대로 멕시코혁명은 ‘반란의 회전목마’나 영원한 반란의 이미지를 지닌다. 그 속에서 마데로의 정치 혁명, 중부 모렐로스 농민공동체의 봉기, ‘독창적이고 탁월한 군사 지도자’ 프란시스코 비야(판초 비야)가 이끈 이질적인 북부 대중의 투쟁 등 다양한 저항이 계기(繼起)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멕시코혁명의 존재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 도서관에서 서지자료인 『역사학 개요』(Historical Abstract)를 훑어보면서 석사논문 소재를 고를 때, 필자의 눈길을 끈 두 저작이 있었다. 존 워맥(John Womack, Jr.)의 노작 『사파타와 멕시코혁명』(Zapata and the Mexican Revolution, 1969)과 앨런

1) Knight, Alan(1986), *The Mexican Revolu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이트(Alan Knight)의 『멕시코혁명』(The Mexican Revolution, 1986)으로, 두 저작 모두 ‘넘기 힘든 사차원의 벽’처럼 느껴졌다. 어렵사리 1993년 말에 제출한 석사학위청구 논문에서 필자는 멕시코혁명기 민중운동의 대명사인 사파타운동(Zapatismo)의 성격을 살펴보고 해외에서 이수한 박사과정에서는 ‘혁명의 마지막 세대’인 라사로 카르데나스의 집권기(1934~1940)와 퇴임 이후 활동(1940~1945)을 한데 묶어 멕시코혁명의 변모 과정을 검토하려 했다.



2. 다작(多作)의 대명사 앨런 나이트

1946년생인 앨런 나이트는 197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민족주의, 외국인혐오증, 혁명: 1910~1915년 멕시코 거주 외국인들의 공간과 외국인 기업』(Nationalism, Xenophobia and Revolution: The Place of Foreigners and Foreign Interests in Mexico, 1910-1915)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3-1985년 영국 에섹스(Essex)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앤토니 칼리지(St. Antony's College)의 라틴아메리카 역사 교수로 활동하면서 몇 차례 라틴아메리카 센터 소장을 역임했다.²⁾ ‘캠브리지 라틴아메

2) 나이트의 회고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학교에 라틴아메리카 센터가 신설되고 그것이



앨런 나이트

리카 연구 시리즈(Cambridge Latin American Studies Series)'의 편집인으로도 활약한 나이트의 연구 범위는 멕시코혁명뿐 아니라 혁명 후 체제의 문화사, 카르테나스 시대, 20세기 멕시코 석유 산업,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다.

나이트는 『멕시코혁명』 외에 멕시코 역사 3부작을 기획했다. 멕시코 역사 3부작은 현재까지 두 권이 출판되었는데, 첫 두 권은 멕시코 역사의 시작부터 독립투쟁기까지 다루었고 독립 이후 역사를 다루는 제3권과 1930년대 멕시코에 관한 연구서의 출판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그뿐 아니라 나이트는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특히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 접근할

가장 건실한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된 계기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쿠바혁명의 성공이었다. 달리 말해 영국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중흥은 한마디로 냉전의 산물이었다.

수 있는 비교사적 주제에 주목해왔다. 여기에는 혁명, 포퓰리즘, 농민운동, 민주주의 등이 포함되며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관계(따라서 제국주의, 민족주의, 종속 등의 주제) 역시 나이트의 관심 영역이다.

3. 『멕시코혁명』의 파노라마

두 권을 합쳐 본문만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저작 『멕시코혁명』을 통해 나이트는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으로 평가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1910~1920년의 일대 격변을 충실하고 견고한 역사 서술로 재구성한다. 혁명에 관한 첫 질문은 흔히 그 주체 세력이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부르주아(시민) 혁명인가, 민중 혁명인가? 위로부터의 정치적 근대화인가, 아래로부터의 혁명(revolution from the bottom up)인가 등이다. 하지만 멕시코혁명은 어떤 전위 정당의 활약에 의해 가열되지 않았고 그 흐름 속에서 일관성 있는 이데올로기나 국제적 야망이 뚜렷이 포착되지도 않았다. 나이트에 따르면, 이 엄청난 격변의 결말은 레닌의 모델이 아니라 토크빌의 모델을 따른 듯하다. 달리 말해 멕시코혁명은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이나 전위 세력의 활약이 뚜렷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복시키려던 구체제(포르피리오 디아스의 과두지배체제)의 구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Vol. II: 497, 527). 70·80대 노인들이 주축을 이룬 디아스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신세대 집권 세력은 혁명 유산을 전유(專有)하고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였다.

나이트는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몰락을 가져온 1910년 거대한 혁명의 물결을 대중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역사적 경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보기 드문 사건으로 규정한다. 『멕시코혁명』의 제1권(부제:

포르피리오 디아스 세력, 자유주의자, 농민)에서 나이트는 디아스 시대 멕시코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플로레스 마곤 형제를 비롯한 멕시코자유당, 베르나르도 레예스 장군, 프란시스코 마데로 등 디아스 체제의 반대 세력을 소개한다. 또 어떻게 도시의 자유주의자들이 마데로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고자 농민층과 어색하고 불안한 동맹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 멕시코에 입헌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하려는 마데로파의 노력이 반(反)혁명 세력에게 막혀 좌절되었는지 탐색한다. 이와 더불어 나이트는 농촌, 산지, 공장이나 작업장 등지의 대중 저항, 특히 사파타운동으로 대변되는 농업 개혁 지지파(agrarista)나 산지인(serrano)의 혁명 논리, 마데로의 자유주의적 실험에 대한 반란과 보수파의 귀환, 주요 지방의 정세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멕시코혁명』의 제2권(부제: 반혁명과 재건)은 1913년 멕시코 군의 반혁명으로 시작된다. 반혁명은 마데로의 자유주의적 실험을 끝장내고 빅토리아노 우에르타의 잔혹한 통치를 개막시켰다. 반혁명은 동시에 혁명적 동원의 자극제가 되었다. 1914년 여름 우에르타 정권의 전복 이후에는 중부 모렐로스의 에밀리아노 사파타 세력, 치와와의 판초 비야 세력 외에 마데로 노선의 계승을 표방한 베누스티아노 카란사의 입헌파(constitucionalistas)가 위세를 떨쳤다. 마데로의 투쟁과 더불어 초창기 혁명의 한 축을 이룬 사파타운동은 대토지 소유제와 상업적 농업의 팽창, 그리고 중앙집권적 독재에 반발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었다. 사파타에 비견할 만한 혁명가 비야는 다양한 계층이 규합한 대중 군사조직 ‘북부사단’을 이끌었다. 카란사는 북부의 중소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주도권을 잡았으나 사파타와 비야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대중운동 세력의 두 거두(巨頭)는 나이트의 『멕시코혁명』에서 그야말로 권좌에 올랐다. 일부 연구자들은 혁명기에 등장한 자율적인 농촌 봉기의 역할을 경시하거나 흔히 농촌 봉기를 사파타운동과 같은 두드러진 사

레에 국한하지만 나이트는 사회혁명의 열쇠가 농촌에 있었다고 강조한다. 나이트에게 사파타운동으로 상징되는 영웅적인 대중운동은 1920년 이래 ‘국가주도적(étatiste) 혁명’의 선구자였다. 1911년 11월 말 아얄라 강령(Plan de Ayala)을 통해 토지개혁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것, 원주민 공동촌락(pueblo)을 농업개혁의 주체로 내세운 것, 그리고 1914년 5월부터 1915년 10월까지 ‘모렐로스 코핀’에서 전개된 구체적인 혁명의 자취 등은 특기할 만하다(Vol. I: xi). 또한 나이트는 1914-1915년 권좌에 오른 혁명 세력 사이의 대분열에 주목한다. 특히 1915년 4월 셀라야에서 펼쳐진 비야와 카란사 세력의 접전은 사실상 혁명기의 마지막 격돌이었다. 1916년 입헌파의 승리가 뚜렷해진 뒤 소집된 제헌의회에서는 진보적 색채를 띤 1917년 헌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재건의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정치적 이기주의와 보복으로 얼룩진 끝에 거의 모든 혁명의 지도자들이 암살당하고 말았다. 게다가 1918년까지 군사적인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중은 더욱 피폐해졌고 혁명 세력 가운데 일부는 비적(匪賊)의 무리로 변질되었다. 10년 동안 유혈투쟁이 남긴 상처는 매우 컸다. 혁명은 “나뭇잎이 허리케인에 날려 죽어가듯이”³⁾ 당시 멕시코의 인구 1,5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을 삼켜버렸다.

결론에 이르러 나이트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물음을 던진다. 과연 멕시코혁명이 바꾼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마데로와 카란사가 구성한 정부 조직과 기구의 내적 작동 방식 가운데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통해 나이트의 『멕시코혁명』은 그 대격변이 아래로부터의 해방 기획이자 ‘최후의 대혁명’이라는 전통적인 평가의 결을 거스른다. 나이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원칙을 고수하는 데 관심을 쏟지 않은 여러 지도자의 존재 탓에 멕시코혁명에 대한 사회경제적 해석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나이트는 당시 유행하던 마르크스주의적 해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요소가 혁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그리

3) 마리아노 아수엘라 (민용태 옮김), 『천민들(Los de abajo)』, 홍영사, 2005.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북부 중간계급 출신의 혁명파는 외국인을 적대시하기보다 오히려 경제적 차원에서 진보적인 세력으로 인식하곤 했다.

나이트는 사파타운동이나 입헌파와는 구분되는 다양한 부류의 혁명파를 산지인 또는 변경인으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지니지 않고 정리된 계획이나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이들, 예컨대 판초 비야의 ‘북부사단’에 참여한 아시엔다의 페온(peón), 목동, 광부, 비적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존 리드(John Reed)를 비롯해 여러 언론인과 사진가의 주목을 끈 ‘풍운아’ 비야는 추종자들에게 군사공동체의 건설을 어렵듯이 언급했을 뿐, 사파타운동의 혁명적 지향과 목표에 견줄 수 있는 강령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나이트는 혁명의 원인, 진행 방향, 결과가 지역 차원의 움직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판단 아래 전국을 포괄하는 혁명의 논리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지방의 복잡한 투쟁과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접근 방식은 『멕시코혁명』의 가장 뚜렷한 강점 가운데 하나이다.

방대한 분량 속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별로 없을 만큼 『멕시코혁명』은 촘촘하고 밀도 있는 서술을 펼쳐놓는다. 중요한 대목의 서술은 특정한 주장이나 해석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으며 분명하고도 때로는 재기발랄한 문체로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정리한다. 결국 나이트가 내놓은 것은 장인의 완숙한 솜씨로 빚어낸 멕시코혁명 연구서의 표준이자 다음 세대 역사가들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역작이었다. 『멕시코혁명』으로 나이트는 1986년 미국역사학회로부터 앨버트 비버리지 상(Albert Beveridge Prize)을,⁴⁾ 라틴아메리카 역사학회에서 수여하는 볼튼 상

4) 이 상은 1492년 이래 현재까지 미국, 라틴아메리카, 캐나다의 역사를 다룬 최고의 영어권 연구서에 대해 주어지는데 새로운 방법론이나 개념적 도구를 활용한다든가 중요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재해석을 시도한 저작이 우선 선정 대상에 오른다. 변호사이자 인디애나 출신 연방 상원의원(1899-1911), 그리고 미국역사학회 회원과 역사학의 후원자로서 활동한 앨버트 J. 비버리지를 기리는 상으로 1945년부터 매해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Bolton Prize)을 받았다. 『멕시코혁명』은 1986년부터 최근까지 적어도 세 언어로 총 18판이 출간되었고 덕분에 나이트는 멕시코 역사 연구의 권위자로 부각되었다.⁵⁾

4. 멕시코혁명에 대한 해석과 『멕시코혁명』의 위치

앞서 언급했듯이 나이트는 멕시코혁명이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혁명이라는 기존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멕시코혁명에 대한 ‘정통 해석’이 내포하는 도덕적 판단에서 벗어나 실제 벌어진 사건 그대로를 포착하고자 노력한다. 그렇다면 멕시코혁명에 대한 해석의 역사나 멕시코혁명 연구사에서 『멕시코혁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일까? 1920년대 이래 혁명의 승리자들은 멕시코혁명사 서술을 주도하면서 친(親)혁명파의 혁명관을 이룬바 ‘정통 해석’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들에게 멕시코혁명은 디아스의 구체제를 무너뜨린 농민 중심의 대중 운동이자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저항이었다. 이런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1968년 10월 ‘틀라텔롤코 학살’을 전후로 등장했다. 지속적인 혁명 또는 혁명의 제도화라는 신화 만들기에 반발하면서 대중의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주장한 이 수정주의적 해석은 혁명 후 체제의 중앙집권화 시도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화로 귀결된 ‘위로부터의 혁명’과 그것이 지닌 일방적 속성을 비판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등장한 탈수정주의적 (post-revisionist) 해석은 친혁명파의 해석과 수정주의적 접근을 넘어 혁명이 지닌 다양한 지방적 특성을 강조하거나 지배 세력과 대중이 갈등과 협상을 통해 혁명 후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혁명 후 체제는 권좌에 오른 혁명파 엘리트의 일방적인 청사

5) 한국인 정치학자 백종국 교수가 집필한 『멕시코혁명사』(한길사, 2000)는 아쉽게도 나이트의 저작을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뜨린 바 있다.

진이 낳은 결과물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층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방 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탄생한 것이었다.⁶⁾

『멕시코혁명』은 넓게 보아 수정주의적 해석에서 탈수정주의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가교(架橋)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0년에 걸친 무장투쟁기와 혁명 후 체제가 디아스의 구체제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그것의 중요한 요소, 즉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역설할 때, 『멕시코혁명』은 수정주의적 해석의 지지자처럼 보인다. 동시에 『멕시코혁명』은 한 지역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조명하고, 그것이 다른 지역의 대중 투쟁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천착하다는 점에서 탈수정주의적 해석의 전조를 드러내는 듯하다.

나이트의 『멕시코혁명』은 멕시코혁명의 시기 구분이라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멕시코혁명을 ‘대반란’으로 표현한 라몬 루이스는 혁명의 기점을 1905년으로 올려 잡기도 하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1910년 11월 마테로의 봉기를 멕시코혁명의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혁명이 지속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혁명을 파악하는가라는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멕시코혁명이 최소한 1917년이나 1920년, 또는 1940년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1910년부터 1940년에 이르는 장기적 혁명을 강조하는 반면, 나이트는 1910~1920년을 혁명기로 상정한다. 1920년 12월 알바로 오브레곤의 집권을 경계로 이전 10년 동안 전개된 대중동원과 무장투쟁의 단계,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혁명의 승리자들이 ‘혁명의 제도화’를 통해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국면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트의 『멕시코혁명』이 멕시코혁명사 연구의 기념비적 저작이라 할 지라도 물론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이다. 멕시코혁명사 연구자 마크 워서

6) 박구병, 「멕시코혁명 및 혁명 후 체제에 대한 연구 동향의 변화-1980년대 말 이래 영·미 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54집, 2005, p. 96.

먼(Mark Wasserman)이 지적한 대로 나이트는 당시 경제적 조건에 대해 면밀히 탐색하지만 때로는 경제 상황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에 닥쳐온 경기 침체가 북부 멕시코의 중간계급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그리 강조하지 않는다. 나이트는 1908년 이래 디아스 체제에 반발한 북부 멕시코의 엘리트층이나 중간계급의 대응이 경제적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정치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역설한다. 즉, 정치적 불만과 파열이 혁명의 발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06년 소노라 주의 광산 노동자 파업에서 드러나듯이 1900년 이후 경제 상황의 악화와 특히 1907년 이래 미국 경제의 불황은 디아스 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과세, 토지 강탈 또는 대농장의 확대, 지방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 처분 등 지방 차원의 갈등을 야기한 주요 쟁점이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사안이었다는, 달리 말해 두 가지 측면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중첩되어 있었다는 워서먼의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⁷⁾

박구병 -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7) Mark Wasserman, "The Mexican Revolution. Volume 1, Porfirians, Liberals, and Peasants. Volume 2, Counter-Revolution and Reconstruction by Alan Knight,"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2, No. 3, 1987, p. 780.